



## 안야 테일러 조이와 니콜라스 홀트가 함께하는

### 예거 르쿨트르의

### 리베르소 캠페인, *A NEW TURN*

단 한 번의 작은 날갯짓만으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사건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상상도 하지 못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나비 효과'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 대양이 되고, 작은 미소로부터 영원한 사랑이 시작되며, 한 번의 붓질에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합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가장 사소한 디테일이 지극히 중대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인과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워치메이킹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밀성, 뛰어난 성능, 완벽한 타임피스는 미크론 단위의 섬세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워치메이킹은 다양한 영감에 뿌리를 둔 혁신과 세심한 손길을 거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이는 시간에 관한 참신한 시각을 제시하며 하나의 아이콘에 색다른 매력을 부여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는 이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타임피스입니다.

#### 자연의 변화를 투영하다

2022년 가을, 예거 르쿨트르가 앰버서더 니콜라스 홀트(Nicholas Hoult) 그리고 안야 테일러 조이(Anya Taylor-Joy)와 손을 잡고 리베르소를 위한 새로운 영상, *A New Turn* 을 통해 나비 효과의 위력을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영상미 속에 정반대의 자연 현상이 함께 등장합니다. 수십억 개의 빗방울이 모여 거세계 쏟아지는 폭포가 되고, 바람에 실려 날아간 씨앗은 고요한 숲 속에서 생명을 피워냅니다.



이 은유는 리베르소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시계의 완벽한 정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 몇 밀리미터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타임피스의 아이콘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리베르소의 뒷면 디자인에서도 작은 차이의 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단색과 컬러가 대비를 이루는 영상 속에 투사된 수많은 이미지를 배경으로 니콜라스와 안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연, 타임피스, 그리고 인물이 역동적인 조화를 이루며 변화무쌍한 자연을 담아낸 매혹적인 캠페인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미세한 디테일로 재해석되어 리베르소에 색다른 이미지를 부여합니다.

### 수많은 시간에서 하나의 기념비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니콜라스 홀트는 2017년부터 메종의 프렌즈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리베르소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상징하는 요소로 비유한 예거 르쿨트르의 단편 영화,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에 출연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영화 속 역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얼핏 사소해 보였던 순간들이 커리어에서 큰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연하게 성사된 미팅이나 단순한 일정 변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안야는 *A New Turn* 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의 앰버서더로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퀸스 갬빗(The Queens Gambit)*과 같은 작품을 통해 세계적으로 극찬 받는 배우인 안야가 첫 활동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A New Turn'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를 소개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대사 전달이나 시선 처리에 살짝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인물이나 연기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이며 거대한 위력을 지닌 일들은 종종 아주 고요하고 작은 순간에서 시작되죠."

###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 맞추어 회전하는 리베르소

이번 캠페인에서는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캘린더 핑크 골드 모델을 착용한 니콜라스, 그리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리베르소 듀에토 스몰 핑크 골드 모델을 착용한 안야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931년에 첫선을 보인 리베르소는 혁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왔으며, 이제



리베르소의 재해석에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트리뷰트 캘린더 및 듀에토 스몰 모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리베르소 트리뷰트 캘린더는 클래식한 아르데코 스타일의 실버 선레이 브러싱 다이얼에서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후면 다이얼로 전환될 수 있고, 이와 함께 새롭게 디자인된 낮/밤 인디케이터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다이얼 속에 하나의 심장을 품은 리베르소 듀에토 스몰 또한 클래식한 다이얼에서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가드룬 장식으로 화려한 매력을 자아내는 다이얼로 이어지는 낮/밤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도전 과제가 수반되기 마련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리베르소의 변화를 예술적으로 구현해낸 예거 르쿨트르의 최신 캠페인 *A New Turn* 은 익숙한 장면으로부터 예상을 뛰어넘는 풍경을 자아내며 한순간에도 크게 변화하는 삶의 본질을 포착합니다.

---

####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을 대표하게 되는 리베르소 타임피스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코닉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지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된 모델로 출시되었으며, 뒷면 메탈 다이얼의 빈 공간은 에나멜링,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1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